

제 1 장

하나님의 교리(교훈)를 빛나게 하는 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
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중
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
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
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
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
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딤후 2:1-10).

교리(교훈)에 대한 정의

우리의 본문은 특별히 두드러진 두 개의 헬라어 단어들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그 첫번 째가 코스메오($\chi\omicron\sigma\mu\acute{\epsilon}\omega$, 10절)입니다. 그 뜻은
코스모스($\kappa\acute{o}\sigma\mu\omicron\varsigma$), 즉 “치장”이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헬라인들에

게는 우주가 아름답게 질서잡힌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들이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때, “코스메틱스”(Cosmetics, 화장품)를 사용하는 데, 이 단어는 “아름답게 하다”는 뜻을 지닌 같은 어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것,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한글개역은 “빛나게”와 “단장하게”를 사용한다. 역주).

두번 째의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α*)인데, 여기서는 “교훈”(1절)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르쳐 진 것, 계시된 것, 알려진 것을 나타냅니다. 디다스코(*διδάσκω*)라는 어근의 영어 단어는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진 “가르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디랙티브”(didactic, 교훈적인)이라는 것이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α*, 본서는 “교훈” 또는 “교리”라고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할 것이다. 역주)인 것입니다.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21회 사용됩니다. 우리들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사도들이 디다케(*διδάχη*), 즉 사도들의 “교훈”을 계속 했음을 읽게 됩니다. 디다스칼리아(*διδασκαλία*)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좋은 예로는, “요제, 요지”라는 뜻과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의 “핵심”이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목회 서신—즉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발견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13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디다스칼리아)에 착념하라.” 바울은 같은 장을 또다른 권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디다스칼리아)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정말로 두려운 책임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전에 관한 교훈”(디다스칼리아)을 가르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6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테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숨결’)으로 된 것으로 교훈(디다스칼리아)에 유

익하니”

그리고는 바울은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디다케)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도서 2장 서두에서 “오직 너는 바른 교훈(디다스칼리아)에 합한 것을 말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이어서 우리의 본문 1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디다스칼리아)을 빛나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요한 헬라어 단어 속에서 아주 분명한 의미 즉, “교훈” 또는 우리 모두에게 전달된 “믿음”이라고 불리는, 분명하고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 “교리”와 동일한 단어이다. 역주).

분명한 진리의 실체

진리의 실체에 대해서는 유다서 3절에 아주 훌륭한 충고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충고에서 “...힘써 싸우라”(에파고니제스다이[ἐπαγωνίζεσθαι])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ἐπι, ‘힘써’)는 헬라어에 붙는 전치사인데, 여기서 성경 기자가 아고니조마이(ἀγωνίζομαι, ‘싸우다’)라는 헬라어 단어에 첨가시킴으로써 강조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애거나이즈”(agonize, ‘몹시 애를 쓰다’)라는 단어가 유래된 것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실체는 단지 어떤 사실들의 체계나 어떤 지식의 집합이나 또는 어떤 복잡한 사색이나 철학이 아니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 그 교리(교훈)가 분명한 진리의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는 그 교리를 혈과 육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자신을 네 명의 복음 선포자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나란히 다섯 번 켜의 복음서 기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순교와 죽음에 있어서 까지도 진리의 실체에 충실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그 교훈 또는 교리)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다서라는 작은 서신 속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읽을 때, 거기에 저는 더해서도 안되고 빼서도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우리는 이 성스러운 기록에 아무 것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을 섬기는 목사가 강단에 설 때에 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어긋나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들을 제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즉 그 사상 체계, 디다스칼리아라고 불리는 진리의 실체, 그 교리(교훈), 그 믿음을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의 실체

성경은 그 교리의 기원과 출처에 대해서 평이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철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인식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식론은 지식의 기원, 타당성, 한계 그리고 방법론 등을 탐구해 봅니다. 배우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우리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이고,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고대의 철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인식론을 연구하고 토론했었습니다. 플라톤은 지식의 궁극적인 출처는 마음(헬라어로 누스[νοῦς]라고 함)에, 또 생각해 가는 과정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플라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좌석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의자는 현실적이거나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 의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고, 그것만이 영원히 있게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관념론자들의 기원은 플라톤에게로 소급해 가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이란 감각과 실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비종교적 인본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 실용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것들 중의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단행하신 만물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플라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교 신앙은 사람이 단지 자기의 이성적인 추론에 의해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욥기 11:7~9에서 욥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식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리스도교의 신학 체계에서는 여러분이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는 궁극적인 지식을 알 수 없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사는 의미는 무엇일까? 내 목적은 무엇인가?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교 신학 체계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감각이나 현실의 관찰만으로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겨우 보이는 것을 보고, 느껴지는 것을 느끼고, 관찰되는 것을 관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참되고 실제적인 목표, 또는 의미는, 우리가 감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곳, 현실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곳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진리 체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게 하실 때에만 우리들은 마침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디다스칼리아, 즉 “교리”(교훈) 또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교리(교훈)의 절대적 중요성

교리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만약 그 교리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바른 것이라면, 그리스도교인의 삶이 그 위에 가치있는 상부구조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반이 올바르게, 참되고, 잘못이 없다면, 그 위에 지은 집은 튼튼하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반이 옳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참되지 못하고, 연약하다면, 그 위에 세워진 벽들은 결국에는 무너질 것입니다(마 7:24-27을 참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문화와 현재의 문명을 놀려 찌그러 뜨리는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초가 잘못된 모래 위에 그들의 집을 세워왔고, 우리들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시 11:3)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수 없이 많은 세대들이 세속의 인본주의와 만연된 물질주의,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과학의 장미빛 약속 때문에 그릇된 길로 인도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백만의 사람들은 비참하고 끝없이 깊은 실존의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인간의 철학

적 사색에 속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던 위대한 근본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인간의 명상에 빠져서 자기들의 길과 희망을 잃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토마스 하디는 1928년에 죽었는데, 그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영어권의 세계에서는 탁월한 재능의 시인이자 소설가였습니다. 그는 현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현대 세계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언어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생각이 깊은 글귀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천재적 문학의 거인이 교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의자 곁, 그 곳에 무릎꿇은 당신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는 그 평안을 내 마음 모르기에,
 그들에게 “안녕”하고 속삭이시는
 그 분, 내게는 “안녕”하고 말한마디 없으시기에
 내 부족함은 그들의 동정심을,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받을만 하지.
 오지(奧地)에서만 자라난 것 같은 나는 구경꾼같이,
 손으로 입을 막고 서서, “들어 봐! 들어보자!
 그 영광스런 먼 바다의 소리를!”
 허지만 내 느낌은 허망해, 내겐
 멀리서 폭풍우 치는 어두운 바다뿐.

이것이 바로 현대의 실존주의자가 갖는 소망없는 좌절이요, 우리가 진리의 위대한 가르침을 떠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문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의 실체 대신에 인간의 철학적 사색이라고 하는 불안한 모래위에 건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절망인 것입니다.

마치 물그릇이 그 안에 담긴 물의 형태를 결정짓듯이, 교리와 신앙이 교회를 취하여 각자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 교리가 이교도적이거나 빛나간 것이면, 교회도 바로 그와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진실하고 신실하다면, 교회 또한 진실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주후 200년 대의 후반부에서 300년 대의 초반부에 전체 로마 제국을 휩쓴 격렬한 교리적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설교자인 아리우스(Arius)라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교리를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선포하였고, 전체 그리스도교 세계를 이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타나시우스(Athanasius)가 아리우스를 반대하고 나서서 예수는 참되신 하나님, 신성 그 자체이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아타나시우스에게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저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다. 온 세상을 반대하는 것은 나, 아타나시우스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논쟁은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결말이 났고, 여기서는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Edward Gibbon)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저술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로마제국 멸망사』(*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입니다. 그는 무신론자,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기본은 아리우스파의 이단을 설명하고, 그 논쟁을 밝혀나가는 중에,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를 아타나시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전체 로마 제국에서, 우리의 한국어 자모의 “이”(i)에 해당하는, 작은 헬라어 자모인 이오타(ι)를 떼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를 호모이우시오스, 즉 하나님과 유사한 분, 하나님과 예수의 본질과 실체가 비슷한 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에 반대해서 예수는 호모우시오스, 즉 하나님과 동일한 실체이시며 실제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분, 즉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호모이우시오스와 호모우시

오스라는 이러한 두 단어의 철자상 차이는 바로 한 개의 작은 글자, 헬라어의 이오타(ι)였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는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컸던 것입니다.

토마스 칼리슬(Thomas Carlisle)은 이것을 알게되자, 그의 젊은 혈기를 가지고, 성직자들, 교회 종사자들이 논쟁거리도 안되는 차이들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편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에 대한 예로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칼리슬이 나이가 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젊은 시절에 빠져있었던 태도와 언행에 대해서 사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차이점들이 종종 삶과 죽음, 천당과 지옥, 진리와 오류 사이를 밝혀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칼리슬의 나중의 자세가 올바른 것입니다. 이 교리들은 비록 가장 작은 발음 하나에 있어서라고 해도 모두가 의미깊고 결정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세부적인 문제로 씨름하는 천문학자나, 방정식을 계산하는 수학자나, 화학 공식을 산출하고 있는 화학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또 장부를 맞춰보는 은행원 중의 어느 누구도, 소수점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고 사소한 점 하나를 옮겨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의 누구라도 한 두 숫자만 옮겨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한 교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고 밝혀지는가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냇물에 떨어진 작은 조약돌,
 많기도 많은 강의 길을 바꾸고,
 나뭇가지 휘청인 작은 빗방울,
 크기도 큰 떡갈나무 영영 뒤트네.

그 교리, 그 가르침, 그 디다스칼리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

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에서 이러한 충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실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문명의 진로를 형성합니다. 단지 그 교리들은 인간 생활의 근거인 것만이 아니고, 또한 교회를 이루고, 형성하며, 지탱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아가 그 교리들에 대한 엄격한 믿음이 우리의 그리스도교의 문명의 목표와 궤도를 결정짓고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방 세계에 직면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 자신을 우상의 신전에서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예배를 애국심과 동일시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황제의 초상화 앞에서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을 반역죄로 처형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이스, 로마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들은 로마 황제의 초상화 앞에서 절하기를 거절했고, 심지어는 초상화 앞에 있는 타고 있는 불 위에 아주 조금이나마 향을 뿌리기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큐리오스 카이사르(*Kýrios Kaĩsar*, 주가 되시는 황제 폐하), 즉 “폐하께서 주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큐리오스 예수스(*Kýrios 'Iησοῦς*, 주님 예수), 즉 “예수께서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의 비타협적이고 굴복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그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그러한 순교자들의 피로 수백년 간 얼룩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둥에 묶여 불타 죽었지만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 교훈의 엄격성이 그 첫 수백년 간에 있어서 그리스도교의 순교자를 힘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미국은 그러한 믿음의 엄격성,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그러한 자세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국교회가 자신들의 작은 교회

를 지배하려는 것을 거부한 순례 선조들은 미국으로 왔으며,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로운 교회를 가질 수 있는 이 그리스도교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영국 침례교회는 혹심한 탄압때문에 네덜란드로 피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가 토마스 헬위즈(Thomas Helwys)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 모임의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곳 네덜란드에 머무른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못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위협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헬위즈 목사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소책자를 써서 영국왕 제임스 1세에게 이 글을 보냈습니다.

폐하께서는 언젠가는 죽음을 당해야 할 사람이시 하나님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멸의 영혼을 위하여 율법과 법령을 만들고, 그들을 지배할 영적인 주(Lords) 들을 세울 만큼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폐하께서 영적인 지배자들이나 법률들을 제정하실 권한이 있다면, 죽을 운명의 인간이 아니라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와 양심의 유일한 왕이시며 율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헬위즈를 체포해서 투옥했고 그가 죽기까지 그 곳에 잡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 충실했던 좋은 실례일 것입니다!

그러나 헬위즈의 개종자 중 한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박해당한 신자들의 집단이 취했던 불굴의 자세, 믿음에 대한 충직성, 그 교리에 대한 태도가 미국에서의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확립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교리(교훈)의 영광스러운 배열

이 교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일하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골격이 되는 체계입니다. 그러한 골격이 되는 틀이 없다면 우리들은 얼룩진 인간 육체를 쌓아논 의미없는 퇴적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골격 구조야말로 우리들을 향상시켜 주고,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며, 일하고, 발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적같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러한 인간의 골격 구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두뇌를 간직하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고안된 두개골이며, 우리의 심장과 허파와 중요한 기관들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척추 조직과 흉부와 동공이고, 움직임을 가능케 해주는 허벅지 뼈이며, 걷게 해주는 발목뼈와 적골이며, 손을 놀릴 수 있게 해주는 손뼈, 손목뼈, 손가락뼈인 것입니다. 우리의 골격 구조가 갖는 유용성, 유연성, 이동성, 힘 등은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교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뼈는 그 자체로는 황량하고 하얗게 말라있어서, 잔인하고, 징그럽고, 겁날 정도로 불길한 것입니다. 뼈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영적인 구조는 의미없는 덩어리들을 쌓아놓은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교리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게 됩니다.

가장 신기한 환상들 중의 하나이자, 성경에 나타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의 하나를 에스겔 3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서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계곡을 울려다 보면서 말합니다. “그것들은 너무 말랐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서자 하나님께서 움직여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때 벌어진 일은 우리에게 익숙한 흑인 영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자니 발의 뼈는 발목뼈에 붙고, 또 발목뼈는 무릎뼈에 결합되었으며, 다시 무릎뼈는 넓적 다리뼈에, 넓적 다리뼈는 목뼈에, 목뼈는 머리뼈에 붙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뼈들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모든 뼈들을 아름다운 육체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대군이 되어 우뚝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교훈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교훈은 육체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피와 살로 덮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교훈들은 우리 속에 들어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무신론자는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교의 변증자들과 논쟁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집에는 작은 계집종이 하나 있는데,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 그리고는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작은 소녀의 순수하고, 거룩하며, 정직하고, 덕스러운 삶은 나를 당황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고 경건한 그리스도교인의 삶에 대해서 무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경건하고, 기도에 힘쓰는 어머니에 대해 무슨 말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무신론자라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솔직하고, 아들 예수를 머리에 두는 거룩한 그리스도교인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체계적인 신학을 잘 인쇄할 책자는 읽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삶이 갖는 분명한 모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교훈(교리)을 치장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른 교훈(교리)에 합한 것을 말하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모든 위대한 교리들과 속죄론, 동정녀 탄생, 구원론, 성서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봅시다. 그 충고는 말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높은 남자

에게” 그리고는 “늙은 여자에게,” 그 후에는 “젊은 여자에게” 그리고는 “젊은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또는 일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한 생활이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복된 소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딤후 2:10-14을 보라).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일! 입으로만, 말로만, 이야기로만이 아니고 아름답고 고귀한 방법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보니,
영광의 왕이 죽으신 곳이다.
나는 한껏 많은 것을 얻었다 할 때에 잃었고,
내 모든 자랑거리엔 모욕만 쏟아지네.
내 마음 전부 다 한다 해도
너무나 작아 보잘 것 없는 선물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 받으소서.

하나님의 교리를 빛나게 하는 일은 아름답고, 헌신하는 봉헌된 삶으로만 결국은 완성되는 것입니다!